

인터뷰

“CM 기술력 확보가 고부가가치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단초”

- 지속 가능한 발전 위해서는 산업 이미지 개선돼야, 세계 7위 경쟁력 제대로 평가해주길 -

“언젠가 저녁 황금시간대의 공영방송 뉴스에서 우리나라의 케이팝(K-pop)이 한류에 힘입어 1,000억원 수출을 달성했다며 호평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최근 수년 동안 연간 약 70조원에 달하는 수출을 달성하면서도 ‘우리의 해외건설은 왜 공영방송으로부터 외면당할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강인석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 발전에 충성스러운 역할을 하는 효자 산업이면서도 산업의 인식도와 이미지가 너무 낮아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매우 안타까워했다. 특히, SOC 등 건설 분야가 복지과 대립되는 관계로 설정되어 예산에서 배제되는 행태에 대해서는 전체 건설업계가 뭉쳐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없는 부분을 잘 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 산업의 인식도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기업들이 프로젝트관리 기술을 확보해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경상대 토목공학과 교수로서 회원이 4,100여 명에 이르는 중견 학회를 이끌고 있는 강인석 회장을 지난달 23일 전주 가좌캠퍼스에서 만나보았다. <편집자 주>



| 강인석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지난해 11월 학회장 취임 이후 10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느끼셨던 감회와 어려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건설관리학회는 토목, 건축, 플랜트 시설의 건설관리, 설계, 시공 분야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있는 학술 단체입니다. 제가 토목 분야의 두 번째 회장이기는 하지만 우리 분야의 학문이 대체로 전공 구분이 없는 공통적 기술이므로 토목, 건축 등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학회가 1999년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15년이란 짧은 기간에 회원 4,300명의 건설 분야 중견 학회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15년 동안 학회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2년 임기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회 업무를 시작하면서 강조하였던 부분은 학회의 대외적 위상 확대와 학술적 영역 확대였습니다. 어찌 보면 학회로서 기본적 사안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업무입니다. 대외적 위상 확대는 우리 학회 회원들이 적어도 전문 분야에서는 정부를 포함하여 산학연 관련 기관에서 국가대표 선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학술적 영역 확대는 학회의 전문 분야를 확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건설 분야의 학술 단체로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요 발주기관이 학회 사업에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중앙 정부와 발주기관들이 학술 단체에 관심이 적은 점이 아쉬운 부분이고, 최근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학회의 새로운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설관리·시공·정보화 기술 등을 전공하는 교수와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 단체로 알려져 있지만 건설업계 종사자들의 경우 대부분 건설관리, 즉 CM 전문가들이 모여 활동하는 학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회 태동 이후 지금까지가 국내에 CM이 도입되어 정착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학회 구성원들도 대부분 CM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결과적으로 학회가 CM 기술이 정착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회는 국내외의 CM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주요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CM이 설계와 시공 과정을 관리하는 기술이므로 이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특히 CM 분야 학문이 대부분 시공 과정의 사업관리 지식들이고, 실무적으로도 시공 경험이 CM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시공 기술은 CM 기술과 분리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학회는 학술적 역량과 위상 강화를 위해서 시공 기술 분야로 역할을 확대시키고 있고, 이러한 노력은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저희 학회의 영문 명칭도 CM이 아닌 CEM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CM과 Engineering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시공업역의 CM에 대한 관심과 참여 증대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시공업역의 CM에 대한 관심도는 높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시공사에서는 CM을 자신들의 업무와 상관성이 적은 업무 영역으로 보고 있는 점이 큰 이유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구도가 CM 이전에는 그 자리에 감리가 있었고, 감리는 시공사에서 시행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감리 대신에 CM이 자리를 잡았지만 시공사에서는 여전히 감리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형 시공사에서 공사를 수주한 후, 세세한 시공 작업에 직접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하도관리와 사업관리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들은 모두 CM 업무입니다. 즉, 대한건설협회 회원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이 모두 CM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들입니다. 따라서 그런 회사들이 체계적인 CM 기술력을 확보한다면 공사비와 공기 절감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

인터뷰

에서 학회와 건설협회의 발전적 협의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 학회에서는 이번에 시공사의 CM 관심도와 학회 참여도 증대를 위해 시공 TF팀을 구성했고, 현재 시공사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아이টে들로 세미나 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학회와 건설협회 등이 공동으로 시공사를 중심으로 한 '시공CM협의체' 등을 구성해 운영하는 것도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평소 국내 CM시장의 선순환과 국내 업체의 해외건설 수주 증대를 위한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는 토목 분야의 CM 발주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 비교시에 토목 분야의 CM 적용은 금액과 건수 면에서 1/5에도 못 미칩니다. 토목 분야의 적용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토목시설은 모두 국가 재정사업으로 시행되는 점이 주요 이유가 됩니다. 즉, 기존의 감리비보다 높은 비용으로 CM을 시행하는 데 재정 부담이 있고, 또한 장기계속공사로 예산 확보가 안 되어 공기가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CM 효과를 보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설공사에 어떤 제도가 적용되고 활성화되려면 공공공사에 많이 적용되어야 하고, 토목 CM은 모두 공공사업 대상이므로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결국 주요 발주기관의 CM 적용 선진화가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민간 CM의 생태 환경이 발전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측면에서도 건축과 더불어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건축시설은 제한된 공간에서 반복적 적용이므로 넓은 공간에서 비반복적으로 시행되는 토목시설보다 효과를 단기간에 볼 수 있고, 세부 공종 구성에서도 토목시설은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효과가 높

지 않을 것이란 편견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되어 법상으로는 설계와 CM, 감리 등으로 분리된 업역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정부는 건설 기술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위해 법을 제·개정하였지만 문제점 또한 적잖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존 감리의 용어 자체도 건설사업관리로 변경되면서 장단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건설 분야의 3개 서비스 업역이 통합됨으로써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 CM 적용이 미미하던 토목시설에서는 CM 활용이 다소 증대될 수 있는 점이 기대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에 CM시장을 구축해 온 건축시설 분야에서는 도리어 CM의 의미가 기존의 감리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 점이 우려됩니다. 감리의 건설사업관리 변경도 세부 내용을 보면 궁극적인 CM 지향의 목표 의식을 갖지 않은 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동일한 명칭이 되니 시장의 혼선이 있는 것입니다.

제도 개선 측면에서 발전적으로 감리 체계는 학술적 의미의 완전한 CM 체계로 변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산업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위해서는 발주기관별 특성과 역량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투명한 발주 방식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계약제도에서도 장기계속공사 계약 체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가 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예산이 없으면 신규 공사를 줄여서라도 계속비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고, 사업 초기에 예산에 적합한 사업 기간을 충분히 고민하여 결정된 후에는 그대로 시행되는 예측 가능한 사업관리 제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및 글로벌 건설산업에서 BIM을 비롯한 IT, 자동화 분야가 가지고 있는 위상과 역할 및 향후의 주요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건설 프로젝트의 규모는 한 건 규모가 수조원에 이르는 메가 프로젝트로 되고 있고 더욱 고난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전통적 기술만으로는 한계를 갖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ICT 기술의 건설 활용은 신공법 적용 못지않게 중요한 방법론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IT 환경이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고, 건설 경쟁력도 나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분야에서 IT나 자동화 연계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건설 선진국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설계/시공 기술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런 기반 환경을 십분 활용하면 'ICT 기반 융복합 건설 기술'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 분야 ICT 기술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BIM 등 ICT 기술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중요합니다. 즉, 기술 적용의 적정 대가 지급 체계와 적용 후의 성과 측정 체계 등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건설업계가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건설산업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우리나라 글로벌 건설 경쟁력이 7위이고, 건설공사 해외 수주 규모가 연간 70조원으로 국가 예산의 1/5 규모입니다. 자동차 수출액과 유사한 규모이지만 자동차는 다시 수입되는 물량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건설 수주 규모는 국가 경제 발전에 충성스러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국내에서는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건설 예산이 유독 복지 예산과 비교되면서 건설산업의 인식도는 더욱 저하되고 있고, 국내 발주 물

량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은 해외 진출 여건도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진출하는 사례들이 있고, 해외사업을 하고 있는 대형 기업들도 여전히 리스크관리에 소홀히 한 채 수주에 전력하는 모습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국내 건설산업의 인식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학·협회, 공공기관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기 상황에서 관산학연 건설 관련 기관들이 공동 대응 체계를 시도한 사례는 많지 않은 듯합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액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중·고등 학생의 건설산업 인식도는 심각한 수준에 있고, 그로 인해 대학에서 건설 관련 전공의 인지도 역시 바닥 수준이며, 졸업을 해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 인식도가 개선되어야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건설산업 인식도 개선이란 것은, 없는 부분을 잘 봐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평가를 받고 싶다고 읊소를 하는 것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기업의 PM 기술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외건설 5대 강국이 목표인데 건설 선진국에 비해 시공 대비 설계 기술이 부족하고, 그보다 더 부족한 부분이 프로젝트관리 기술입니다. 최근 건설기업들의 절대적 과제가 해외 시장 확대인데, 해외건설에서 단순 수주 중심이 아닌 고부가가치의 시장을 파고들기 위해서는 CM 기술력 확보가 필요조건이고, 이로써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협회와 학회 등이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글·사진 : 이형우 편집장